

# 〈AISS 2014 \_ PHOTO ESSAY〉

Ajou University, Korea

장정윤(Jang jeongyun)

## 1. 필드 트립 & KCW

AISS 프로그램 중에는 수업 이외에도 체험학습을 하는 필드트립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반에 가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에는 Korean Culture Workshop, 그리고 그 이외의 필드트립들을 가게 됩니다.

먼저, 제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격적인 Summer school을 하기 전 서로 친해지기 위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막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서로가 어색할 때인데 다녀 오면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제주도의 관광지 이곳 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재미있는 3일을 보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숙소 근처에서 뒤풀이를 하면서 한국만의 술 문화를 가르쳐주고, 게임도 하면서 급속도로 더 친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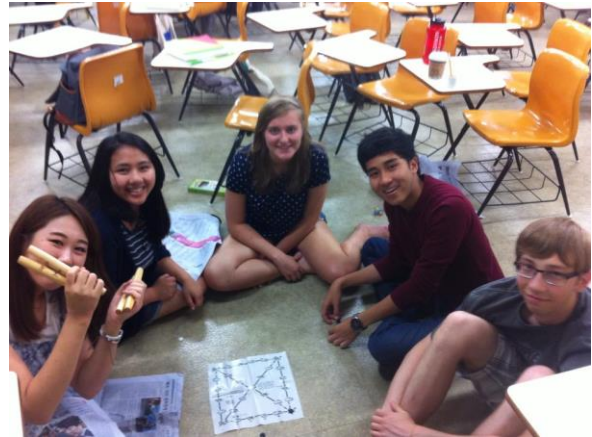


그리고 수요일마다 수업시간 외에 Korean Culture Workshop (KCW) 이라는 체험학습을 매주 가게 됩니다. 한국민속촌 방문, 태권도체험, 보령 머드 축제, 남산 한옥마을 체험 등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의 리더로서 조원들을 인솔하고 이끄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활동들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체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함께여서 더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필드트립에는 제주도 이외에도 에버랜드와 동강 래프팅의 여행이 두 개 더 있었습니다. 일단 섬머스쿨을 하기로 한 이상 모든 체험학습에는 참여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실제로 필드트립을 같이 다니면서 친해질 기회가 생깁니다. AISS 참여 희망자 분들 중에서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서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프로그램이 끝난 후 Optional trip도 희망자에 한해 가게 되는데, 저희 때는 희망자가 적어 결국 못 가게 되었지만 막상 끝나고 그냥 헤어지려니 '또 같이 갔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학생들끼리 의기투합하여 많이 신청하여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수업

AISS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체험학습 이외에도 교양으로 인정되는 수업도 진행됩니다. 한 사람당 총 6학점, 즉 2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 그 중에서도 'Korean Culture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 과목을 하나 수강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가장 많은 한국학생들 수강한 수업이기도 합니다. 수업은 교수님의 설명 이외에도 조 별로 토론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수님은 외국 분이시지만 한국 생활을 오래하셔서 한국문화를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교수님만 바뀌지 않는다면, 아마 AISS 수업 중에서는 비교적 수월한 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이나 기말고사도 따로 없었고, 조 별 발표와 영어 에세이 한 편이 과제로 주어집니다. 출석은 구두로 이루어지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지 않고 매일 참여하였습니다.



추후에 수강 신청을 할 때, 수업을 하나만 들을지 두 개 다 들을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약 학점이 급하지 않다면 하나만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개 모두 듣는 학생들도 있었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개 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워낙 AISS 자체가 수업 이외의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나중에 학생들이 과제나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해 버거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강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3. 기숙사

기숙사는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AISS2014에 참여했던 아주대 학생들 중에서도 자취하는 학생 말고는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수원에 사는 학생들도 기숙사에서 생활했었는데,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부분도 AISS의 즐거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4인 실인 광고관에서 생활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방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같이 방을 쓰다 보니 서로 이야기 할 일도 더 많아지고 재미있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같



이 치킨을 시켜먹기도 하고, 룸메이트들끼리 밖에서 밥을 먹고 같이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4인실과 2인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인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룸메이트가 한 명만 있다 보니 룸메이트와 성격만 서로 맞는다면 4인실에 비해서는 룸메이트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인실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보니 2인실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과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2인실인 화홍관에는 각 층에 취사실도 있지만 생각보다 화홍관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거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각 건물 간의 이동도 자유롭고, 생활 이외에도 함께할 기회들이 많으니 기숙사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활 방식 선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 일상 생활



그 날의 하루하루 수업이나 필드 트립이 끝난 후에는 각자의 자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때, 학생들끼리 함께 갈 사람을 모집하여 서울이나 학교 근처로 놀러다니기도 합니다. 학교 앞에서 치맥을 먹거나 노래방을 가기도 했고, 서울 남산이나 명동, 이태원, 용산 찜질방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주말에는 DMZ를 다녀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AISS를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런 날이

없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자유시간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 AISS 생활이 더 보람되게 느껴지는 정도도 다를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에는 같이 어디 다녀오자, 아니면 밥을 같이 먹자는 등 글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시간만 가능하다면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5. 느낀 점

3학년 여름방학의 2/3을 AISS와 함께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잘 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나라에서 온 다양한 학생들과 한 달이 조금 넘게 같이 지내면서 정말 뜻 깊은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AISS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싶고, 영어 실력도 늘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해외 단기 파견을 신청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더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어 더 긴 기간의 교내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습니다. 한 달 반을 함께 지낸다고 해서 영어 실





력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만났을 때 더듬거리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유창하지 않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큰 얻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 데, 도중에 여러 나라들을 여행 할 때, 각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든든한 친구들인 소중한 인연들도 얻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11월에도 아직까지 반갑게 서로 스카이프도 하고 편지도 주고 받으면서 연락하곤 합니다. 생활 하다가 매일 노는 것도 힘에 부칠 때도 있었고, 영어실력에 한계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다시 그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에 있어서 바로 신청하기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자신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 돈이 아까울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알차고 색다른 여름방학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AISS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 〈AISS 2014\_Photo Essay〉

Ajou University, Korea  
김찬이(Kim Chan-Yi)

아주국제여름학교(AISS)는 제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약 70~80여명의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고 수업도 들으며 정말 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AISS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학점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이죠! 많은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K-pop 이나 드라마 또는 제가 잘 보지 않는 예능까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대화 나누기가 한결 쉽습니다. 공통 화제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을 때 당연히 서먹서먹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먼저 대화를 걸어보세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제주도여행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3~4일 후 제주도로 2박 3일 일정으로 떠납니다. 방을 외국인 친구와 단 둘이 쓰게 되는데 저는 그 때 그 친구와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친해졌습니다. 같은 조 아이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우도를 포함해 제주도를 관광하게 됩니다. 물론 식사는 한국 음식입니다! 다들 매우 잘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마지막 밤 외국인 친구들과 노래방을 갔는데(제주도의 어느 구식 노래방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 노래를 많이 알고 흥얼흥얼 대충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왠지 뿌듯했습니다.

## ▶ 커리큘럼

제주도 여행 다음 주 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아침 9시 수업, Korea History 관련 수업을 선택해 들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orea History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알기 때문에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쪽지시험은 매우 수월하게 풀 수 있었으나 과제 등 요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분이로 미국에서 History 관련 수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각자 주제를 정해 presentation을 하며 Written Exam을 마지막으로 3주에서 4주간의 수업이 종료됩니다.



### ▶ 요리파티

팀 별로 요리대회(?)도 열립니다. 저희 팀은 떡볶이를 간장, 까르보나라, 라볶이로 나누어서 요리를 했는데 화진, 삼겹살김밥 등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외국 친구들과 같이 요리하면서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까르보나라를 맡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잘 요리하더군요.

매주 수요일은 외국인 친구들과 다 같이 현장학습을 갑니다. 외국 학생들에게는 1학점으로 인정이 되지만 한국 친구들에게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대 차 공장, 보령머드 축제, 남산 한옥마을, 민속촌, 화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 ▶ 전통문화체험

남산 한옥마을에서는 한국에 관한 4가지 체험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도, 한지를 이용한 액자 만들기, 서예, 한복 체험이 그것인데 기본적으로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인지 매우 흥미로워 하고 재미있어했습니다. 특히 한복체험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 ▶ 보령머드축제

보령머드축제는 저도 처음 가는 축제여서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도 정말 재미있어했던 것 같습니다. 머드축제장 옆에는 해변도 있어서 해수욕도 즐기고 (그냥 한 명 붙잡고 냅다 빠트리고 놀았습니다) 놀이기구(?)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드 판에서 꼬리잡기 등을 하며 외국인 친구들과 더 돈독해 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현대자동차 공장투어는 분명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약간은 지루했고 화성은 더운 여름날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야경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을 방문했는데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프로그램을 하는 한 달 동안 생각보다 자유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 외국인 친구들과 어디를 놀러가던지 잘 계획하셔서 재밌게 보내세요.



## ▶ 우리들의 Daily Life..



저는 수원에 살았는데 기숙사를 선택했습니다. 4인실을 썼는데 기숙사 꼭대기 층은 거의 AISS 프로그램 친구들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당연히 친구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이 밤에 모여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걱정 없이 밤에 놀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 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즐거운 추억이고 지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AISS 사진첩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만큼 그립습니다.

## Celebrity party !



연예인이나 캐릭터 패션 따라 입고 저녁 다 같이 먹고 즐기는 날입니다. 끝나고 보통 플랜비를 갔고 그 후에는 몇 명은 클럽을, 몇 명은 학교 주변 노래방을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담 없이 옷 입고 참여하세요.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 잊지 못할 6주간의 글로벌 경험, Thank you AISS :)

AISS는 참여하는 연령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합니다. 그 덕에 더 재밌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자신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대화가능하고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참여하고 나면 한 달이 참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즐거울 겁니다.



# six weeks in suwon

A photo essay on my study abroad in South Korea  
By Amanda Thao, 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 USA

---



Hello, my name is Amanda and I attend the University of Wisconsin-Eau Claire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I decided to attend Ajou University during the summer of 2014 not because I heard good things about it nor because it was special to me in any way, but because it was simply the only choice I was given. Looking back, I still remember thinking about how much I wanted to attend school in Seoul and being disappointed with my lack of choices, but now I can say with all my heart that attending Ajou University and participating in the Ajou International Summer School was one of the most life changing experiences I have ever gone through and I am so grateful for having been a part of it. Through this amazing program, I have experienced so many firsts and met so many amazing people, it all has

definitely changed my life for the better and I know that the memories created from this program will forever be remembered and cherished.

My flight from the United States was about fifteen hours of pure misery, and after finally getting off the last plane, I felt a huge rush of nervousness. It was my first time traveling out of the country and away from familiarity, I didn't know how to act or even really how to feel.

There were three Korean Ajou students waiting for us (my two friends and I) at the airport exit, and because of them, I had an amazing first impression of Korea and Korean people. They calmed my nerves right away, immediately welcoming the three of us with smiles and constantly trying to help with our luggage. After, we were then met with another Korean student after getting off the airport bus, then two others in front of the dorm. Through this harmonious chain, we each arrived to our rooms safe and sound.



Usually, the first few days of a program are ice-breaking days, when people get to know one another and "break the ice", but in terms of AISS (Ajou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 think the Jeju Island trip was our one huge ice-breaker. Jeju Island is a volcanic island off the coast of South Korea and is a popular vacation getaway for many. Being able to go on such a wonderful trip with everyone, it really helped us to get to know one an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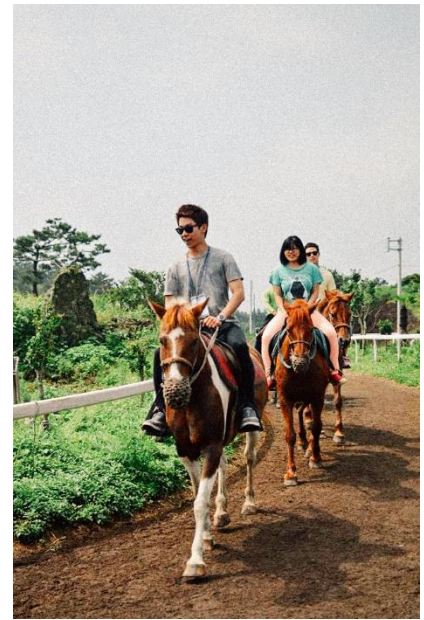
and become familiar before classes and other activities were held. We climbed mountains, swam in the ocean, took several group photos, walked through an underground cave, shot off fireworks on the beach, went horseback riding, explored a trick-eye museum, and had a wonderful late night dinner followed by a huge game of Ninja. I think that being able to mingle with each other for a couple of worryless days was a great way to begin friendships and build a solid foundation.

After the Jeju Island adventure, classes began. But going to class every day didn't become tedious, it was actually kind of fun. Learning in class admittedly wasn't much different from

learning back home, but it was the atmosphere in which we were learning that made it more unique.

We were all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 was learning with people from Puerto Rico, Malaysia,

China, France, Indonesia, Russia, it was a learning experience in itself to be around all these amazing individuals. Though we did learn a lot from our professors, we also learned a great deal from each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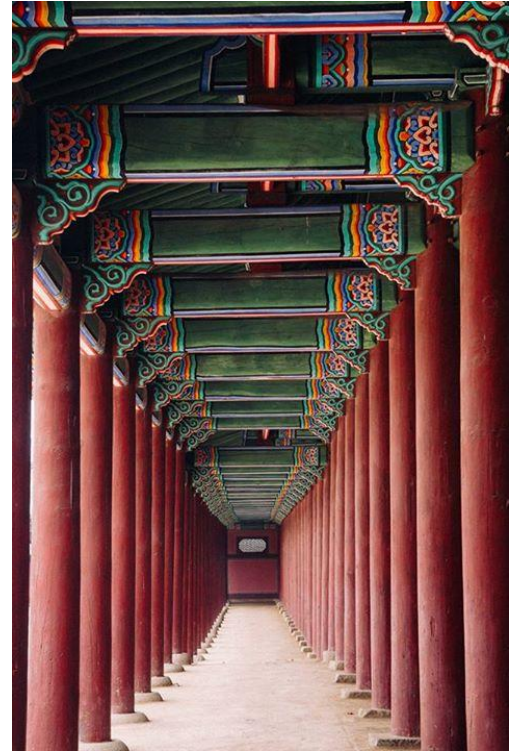
As the days went on and though we all began to discover our own comfortable routines, the feeling of excitement and discovery within each one of us did not falter. We all regularly posted fun events via our personal "AISS 2014" Facebook group such as dinner meet-ups, clubbing nights, DMZ visiting dates, stuff like "who wants to go to Plan B (a bar we frequented) in an hour?", and birthdays soon in need of celebrating. Throughout the whole program, I felt as if we were one big family, experiencing this whole new experience together. It was a warm feeling of belongingness, one that I will forever remember.

There was one thing that I especially found to be extremely unique to the AISS program: the Korean Culture Workshop. Korean Culture Workshop, or as we called it, KCW, is a required class for the AISS program. Each Wednesday, we all got the chance to become exposed to something related to Korean culture through KCW's. For example, we learned taekwondo, visited Hyundai, attended the Boryeong Mud Festival, toured the Hwaseong Fortress, and wandered through two folk villages, where in one, we tried on traditional clothing, learned calligraphy, and created picture frames. If I had to choose, the KCW would definitely be my favorite class of the summer.



Apart from the KCW, there were also several other events planned for us AISS students, which were more informal, such as our celebrity dress-up party and two movie nights. They were a blast!





But that's not all. There were also three optional field trips, all of which I attended, consisting of a day in Everland (South Korea's beloved amusement park), water rafting, and as mentioned up above, Jeju Island. All three of these trips were so worthwhile and dangerously fun. During my six week stay, I felt as if I never ran out of things to do or things to be excited for.



Now, as an overview, here is my take on experiencing culture shock in South Korea. I was personally already a little familiar with Korean language and mannerism through Korean dramas and music, but there were still some things that I was surprised by. A friend of mine had little to no knowledge of Korea, and she experienced the same things I did.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s make sure you are open minded. Sure the food is different (Koreans love their spice), sure you don't understand the language, sure everyone interacts differently, everything new you encounter will be easier to adjust to if you are open minded. If you're not, it definitely makes it a little more

difficult for everyone. I think that being open minded will help when embracing a new culture, they go hand in hand.

Ah! We didn't only attend coordinated events, we also traveled independently. Seoul was a popular destination and I know others also made their way to Busan, but as my days in South Korea wound down and my time at Ajou University was lessening, life became more difficult. The topic of conversation switched from "Let's go to Seoul next weekend" to "When are you departing?" and "When will be the last time I see you?" It would be a lie to say that leaving was easy. I remember final nights of goodbyes. I remember us holding hands as we shed tears, clutching each other as we sobbed, endless hugs, just not wanting anything to 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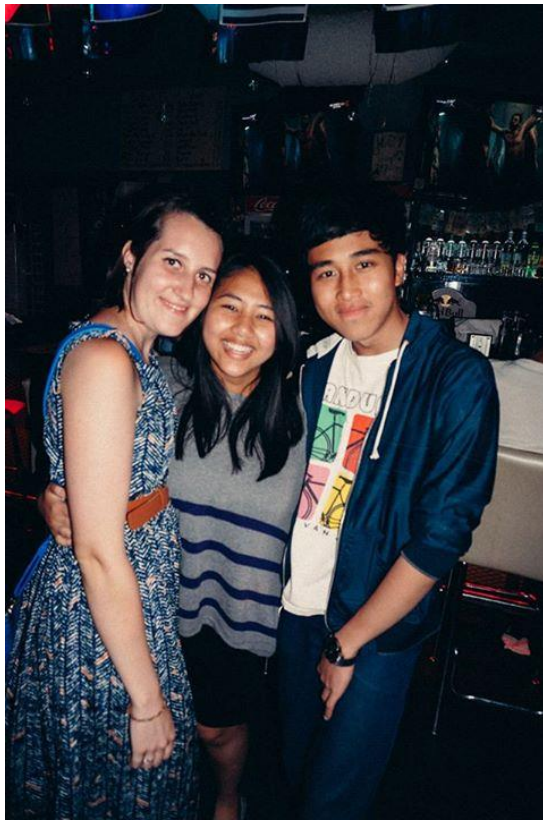


The friendships that were created during AISS will last a lifetime, and I know that the people whom I shared a precious six weeks with in South Korea will definitely be seen again. Three years of travel plans have already been mapped out, messages will be exchanged, and contact will not be broken. I am lucky to have been a part of such a harmonious group of people, all of us so compatible. It was hard to leave South Korea, but it was even harder to walk away from those whom I traveled and shared experiences with for six weeks. A good friend of mine wrote, "Some of the best people aren't the people you grow up with, but are the people you get to know for a six week period."

It was difficult having to come back home after such a short time, but as the famous proverb goes, all good things must come to an end. Don't be sad it ended, be happy it happened. In the end, I know that I have gained a lot and understand myself so much more. My future is limitless and thanks to AISS, it has grown leaps and bounds. I know that I have only started my life and there is so much more out there to experience and uncover. Thank you Ajou University and thank you South Korea.







-First three images: ice cream in Jeju Island, friends at Plan B, final class presentations

-Second two images: group photo, Bau House Dog Cafe

-Third two images: day at the lake, airport send off





# **AISS Photo Essay 2014**

## **Nicholas Calver**

### **University of Canberra**

#### **Australia**

Hi everyone. My name is Nicholas Calver and I'm here to tell you all about my fantastic experience at Aju University as part of the summer program.

### **Dormitory**

I was staying in a two bedroom dormitory during the Aju International Summer School (AISS) program. The dormitory was pretty small but big enough that each person had their own space. I was told that bedding could be provided. The biggest shock on arrival was the plastic blowup pillow which was sitting on my bed. I did not use it once and slept on a sweater on the first night. It was frustrating having to spend 20,000 won on a pillow. The bed was big enough and there was a desk each and wardrobe. It was a new experience for me sharing a room with another person. It was overall a lot of fun to share a room with a person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 **Korean Cultural Workshop (KC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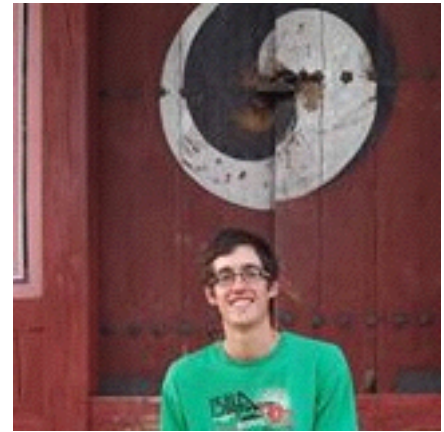
Throughout my stay at Aju we went on weekly activities to different locations to learn more about Korean culture. We were divided into four bus groups (A, J, O and U) and travelled with this our bus group to all KCW's. The first place that we visited was the Hyundai Motor Company. This was not the best place we visited but it was interesting to see the production of the cars and the use of robots rather than people. We then visited a Korean Folk Village. It was really enjoyable to see the old houses and the different games and Korean culture in this village. It was a great day of walking around and seeing new sites.



The next KCW we spent a few hours learning some basic Taekwondo moves such as kicking and punching. It was a lot of fun and I really enjoyed it. In

the evening we went to Hwaseong Fortress and walked a long way round it. When we got to the top there was a really nice view where we took a group photo. It was an opportunity to take photos and see the area at night which was beautiful. The fortress itself was small but nice and a good place to take photos from.

The third KCW was the best of them all. We took the bus in our groups to Boryeong Mud Festival. It was a chance to see something unique that I have never heard of before. The day was so much fun. I went on mud slides, in mud pools, in a mud spa and completed a mud race. During a break for lunch there was music and dancing on the beach and we got sprayed with water. It was great. If I didn't have class the next day I probably would have stayed there. The only negative was that I got badly sunburnt because it was cloudy and overcast I didn't put sunscreen on. It was not a smart move.



The fourth and final KCW we visited was Namsangol Hanok Village. We took public transport to the venue. The temperature outside and humidity meant that it was really hot which took away from the experience at the village. I did some 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calligraphy, picture frame designing, tea drinking and wearing the traditional dress, Hanbok. It was really cool that we got to write calligraphy on a page which we could take home. I wrote friendship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life as the saying goes you "can choose your friends but not your family." The designing of picture frames was a waste of time and effort because it had no cultural interest and it was an activity more suited to children than young adults. The tea was nice to drink but the ceremony beforehand and information provided was not really of interest to me. The last activity was wearing Hanbok which was a interesting experience. It was nice to be able to try it on but it was so hot that you did not really want to wear it for long. So overall not many great activities at this village.

We went from the village to a Nanta performance. It was a cooking show but musical and interactive as well. They cooked food and had audience members come up on stage. It was funny and entertaining as well. It definitely improved the day and was worth seeing. Anybody visiting Korea should definitely see this show.

## Weekend Trips

I went on two weekend trips as a part of the AISS program. The first was to Everland which is the largest theme park in South Korea. The day was a lot of fun overall. It was a little disappointing as there were only two roller coasters. One of them was called the T express(see picture) and it was so much fun. It is wooden and fairly long and is quite fast. I went on it twice because it was so good. The theme park also had a water slide and a safari which had tigers, lions, bears, zebras and giraffes. The bears were hand fed food which was surprising. The water ride got us wet and helped cool us down as it was hot walking around all day as we were there for a long time.



The second weekend trip that was organised for us was a rafting trip on Dongang river. It took ages to get there with a stop in the middle of the trip. However, it was so much fun. I was in a boat with 11 other people and we got to go through rapids



and swimming and the general talk was great. I really liked the opportunity to go swimming. This trip was my favourite and well worth going on.

## Classes

The course I took was Developing Management Skills. It was very well taught by Professor Craig Milner. He was able to use personal experience to help give examples of the management skills in action and to explain different concepts. The way it was taught with no PowerPoint slides and having us interact and discuss the skills and theories was really helpful. As a sport management student the material was relevant and interesting. For a person with English as their first language it was fairly easy to complete the course. The professor was happy to help you out or promptly answer any questions or queries we had. This feedback was especially useful when he put us into teams and gave us an article to present about. The reason I chose this program was for the course and it was beyond my expectations. The professor was not like the professor's at home. He would talk to you on a personal level not just as a lecturer which was really cool. It has been one of the best courses I have taken while at university.

## Meeting new people

I met so man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made a lot of new friends as a part of this program. There were people from 19 different countries taking part in the program. I now have friends that live in Uzbekistan, the United States, China, Malaysia, Singapore and many other countries. The people that you meet will stay friends with you beyond the six weeks. During the six weeks I drank with them, I ate with them, I visited places in Seoul with them and I studied with them. You get so close to these people and then you have to leave them and go home again. I did miss them at a few moments when I arrived home. They become like one big family with different groups as different people. The people that you meet can be kind, friendly, interesting and different. If you go travelling you now have people that can show you these places from a local's point of view. It was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the program was meeting so man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Overall it was one of the best summer's of my life. To meet so many diverse people and make friends with them made it worth it. The course that I completed made it worth it. The KCW made it worth it. All the activities made it worth it. If you are thinking about studying abroad do the AISS program as it will be unforgettable.



